

재가불자 전문 수행·공부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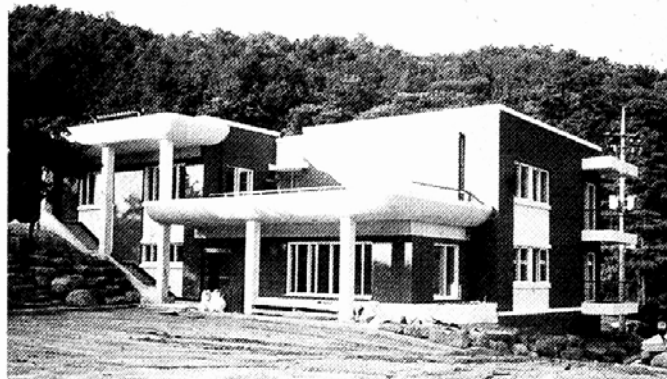
광주 '유마정사' 16일 개원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재가 불자들의 수행과 경전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수련원 유마정사를 16일 개원한다.

정병조 이사장은 "재가불자들이 불법을 올바르게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 불교의 참모습이 되도록 유마정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연구 기금 조성 2층규모 160명 수용

기도·연수·재일법회 등 단기 수련장 활용 기대



유마정사에 모여 '이해와 화합'을 주제로 토론하는 세미나도 기획해 강담이 많은 우리 사회에 종교화합의 이념적 근거도 제시할 계획.

이 마련했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 조성 과정에서 일반회원의 약정금이 100% 납입된 것으로 확인돼, 재가불자 수련 도량인 유마정사를 향한 연구원 안팎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통일신도시 불국토로 가꿀터”

파주사암련 보운스님

“통일신도시가 건설되는 파주에 불국토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스님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모토로 파주시 모든 사람들이 한 종단 한 사찰의 대중처럼 화목한 가운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파주 사암연합회 회장 보운스님(황용사 주지, 스님은 7월 26일 월운스님(남양주 봉선사 회주)을 비롯하여 지역스님 30여명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한 파주시 중앙포교원 황용사에 파주 사암련 현판식 및 사무실 개원행사를 가졌다.



의견을 개진한다. 또 파주 사암련 산하 경승단과 친목모임인 청록회를 양대 축으로 든든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 사암련은 매달 30여명의 가정이 불우한 중학생들에게 급식비 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교양대 추진 불우 중학생 급식비 후원



보운스님은 “지역사찰이 100여개나 되지만 사암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는 군소 종단 사찰이 70여개에 이른다”며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암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종단협의회 산하에 전국사암연합회 본부를 결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美 LA 태고사 대응전 상량

무량스님 7년째 불사...내년 봄 완공 예정



대말씀, 이원익 거사(태고사를 돕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특히 덕현스님의 축하단소 연주(영산회상)가 법회식장을 장엄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달마젠스타 주지 무량스님, LA평화사주지 정산스님, 전 LA포교사단 장 정정달법사 등 LA한국불교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에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이 들 어선다. 미국 캘리포니아 테하차피에 위치한 태고사(주지 무량은 7월 22일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전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의 1부 상량식은 헤안스님(조계종 재부국장의 집전으로 봉행)이 주지 무량스님이 대들보안에 경전과 염주 등을 넣어 봉하고, 도련수 이훈식 씨의 지휘로 대들보가 올려졌다.

부송인 이근찬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상량법회는 증명법사로 초청된 성덕스님(동화사주지)이 상량문을 봉독하고 법문했으며, 주지 무량스님의 총

백담사·건봉사서 통일염원 염불

6~8일 염불만일회 결사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1만번씩 염송하며 남북통일과 국제민간을 염원하는 염불만일회가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내설악 백담사와 고성군 건봉사에서 열린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 주관으로 만해축전 기간에 맞춰 거행되는 염불만일회 결사에서는 염불법회를 비롯한 염불세미나, 염불대동제 등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백담사에서 만해축전 행사에도 참여하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염불만일회 결사 근본도량인 건봉사와 동공대를 참배한다.

특히 이번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사 조실 설산 스님이 불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제로 설법하며, 중요유형문화재 27호인 이애주 서울대 교수는 염불신앙의

정신을 중심으로 승화한 아미타축을 선보인다. 02)732-1206 김재경 기자

전북 증무원장 취임식

향산스님 “사회 밝히는 보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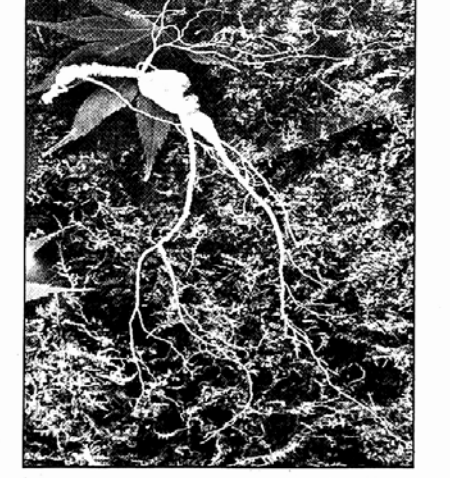


제14대 태고종 전북증무원장 취임식이 7월 20일 태고종 증무원장 혜초, 김재경, 김재경 주지 담파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 전북증무원장에 취임한 향산스님(전주 보문사 주지)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침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민중속의 대승불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성,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생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Advertisement for BBS Buddhist clothing store. Features a list of clothing items and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tore in Daegu.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광비까지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